

2026년도 2/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BSI)조사

YEOSU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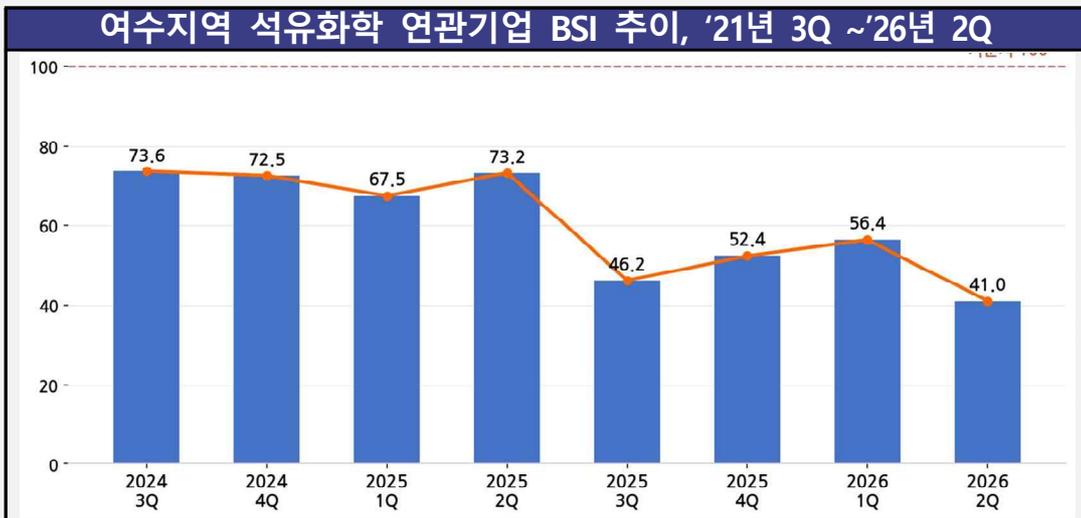
📊 전망 지수

- (종합) 2026년 2/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n=71)는 54.9로 전 분기(49.3) 대비 5.6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임. (석유화학연관 기업 41.0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6.6	69.4	55.7	52.1	49.3	54.9
석유화학연관기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일반업종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상승, 증가)'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악화(하락, 감소)'로 응답한 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연관 업종(n= 39개)은 '41.0'였고, 일반제조업(n= 32)은 '71.9'로 조사되었음.

📊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석유화학 부문)



- **(석유화학 연관업종)**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과 유가 급등, NCC 가동 차질 등으로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수요 회복 지연까지 겹치면서 사업 재편만으로는 채산성 회복이 쉽지 않은 여건이 이번 조사에 반영되었음.
- **(일반업종)** 봄철 관광·소비 재개와 계절적 수요 회복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BSI 지수가 상승한 결과가 이번 조사에 반영됨.
- 다만 BSI가 71.9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본격 회복보다는 급락 이후 부분 반등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산단 가동률 저하·투자 위축·발주 둔화 등의 영향이 향후 지역 경기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질의응답 ※ 세부 항목 조사 결과는 다음 장부터 확인 가능

- 중동사태로 인한 귀사가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해상운임·물류비 상승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과의 거래·영업활동 차질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수출입 물류지연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
23	49	4	15	6	19
19.8%	42.2%	3.4%	12.9%	5.2%	16.4%

1. 조사의 개요

❶ 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다음 분기(4월~6월) 경기전망(체감조사)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❷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26년 1/4분기(1, 2, 3월) : 실적 기간
- '26년 2/4분기(4, 5, 6월) : 전망 기간
- 조사 기간 : '26.3.4. ~ '26.3.18. (휴일 제외 15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방식(리커트 척도)

❸ 조사 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 사
- 응답 개수 : 71개(설문지 회수율 : 38.2%)

❹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❺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항목별로 집계·통계(리커트 척도)·분석·보고

❻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작성 방법

- 설문지 조사를 통해 경기실적과 전망, 항목별 평가를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의 체감경기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 호전(상승·증가) 또는 악화(하락·감소) 여부를 응답받아 이를 지수화했음.

$$\text{기업경기전망지수(BSI)} = \frac{\text{증(+)} \text{ 응답 업체 수} - \text{감(-)} \text{ 응답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BSI≤200)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뜻함.

2. 2026년 2분기 기업경기 전망

❶ 종합 전망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7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8.2%였으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54.9로 조사되었음.
- 이 가운데 석유화학 연관 업종(응답 38개)의 경기전망지수는 41.0으로 나타났음.

❷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 종합 (N=71)

구분	항목	'26년 1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2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49.3	54.9
	매출액	63.0	63.4
	영업이익	53.4	62.0
	설비투자	60.3	66.2
	자금사정	49.3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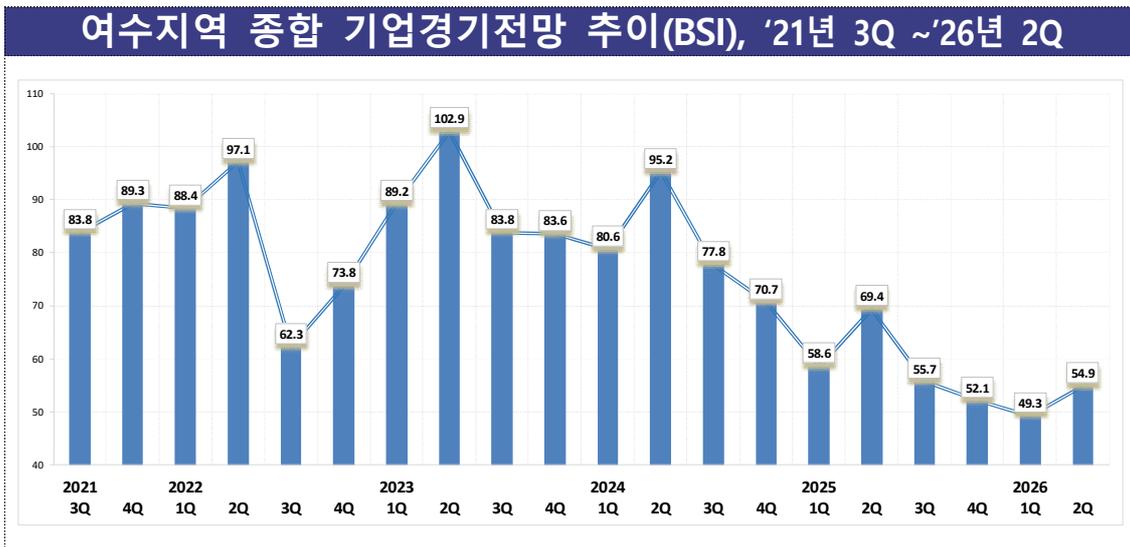
▶ 석유화학연관 업종(N=39)

구분	항목	'26년 1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2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56.4	41.0
	매출액	66.7	53.8
	영업이익	59.0	51.3
	설비투자	69.2	66.7
	자금사정	61.5	56.4

▶ 일반 업종(N=32)

구분	항목	'26년 1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2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41.2	71.9
	매출액	58.8	75.0
	영업이익	47.1	75.0
	설비투자	50.0	65.6
	자금사정	35.3	56.3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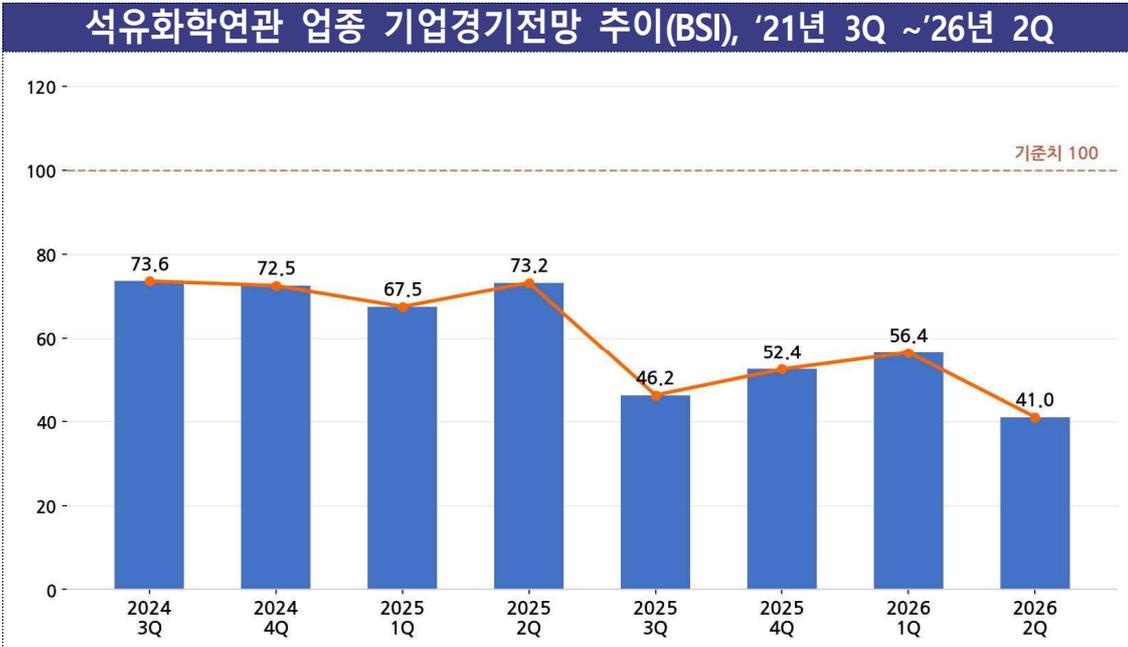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54.9로, 일반업종의 BSI 지수 상승효과로 지난 분기 전망치 5.6p 상승했음.
-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부진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연관업종에서 체감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54.9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일반업종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 종합 BSI : 49.3(26년 1/4분기) → 54.9(26년 2/4분기), 5.6 상승

※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 : 56.4(26년 1/4분기) → 41.0(26년 2/4분기), 15.4 하락

※ 일반업종 BSI : 41.2(26년 1/4분기) → 71.9(26년 2/4분기), 30.7 상승



▶ **종합**

- 2026년 2/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종합 BSI는 전 분기 대비 5.6p 상승했으나, 이는 경기 전반의 개선이 아닌 업종별 등락이 엇갈린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업종이 41.2→71.9(+30.7p)로 상승했지만,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56.4→41.0(-15.4p)으로 급락해 업종 간 엇갈림이 뚜렷하게 나타남.**
- 종합지수 상승이 경기 전반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BSI 71.9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 만큼 업황 회복보다는 전 분기 급락 이후의 회복기대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석유화학 연관업종**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국제유가 급등,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 압력, NCC 가동 중단 등이 잇따르며 업황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부각된 점이 기업 체감 경기를 빠르게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여기에 중국·중동발 공급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사업 재편 논의만으로는 단기간 내 채산성 회복이나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여건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일반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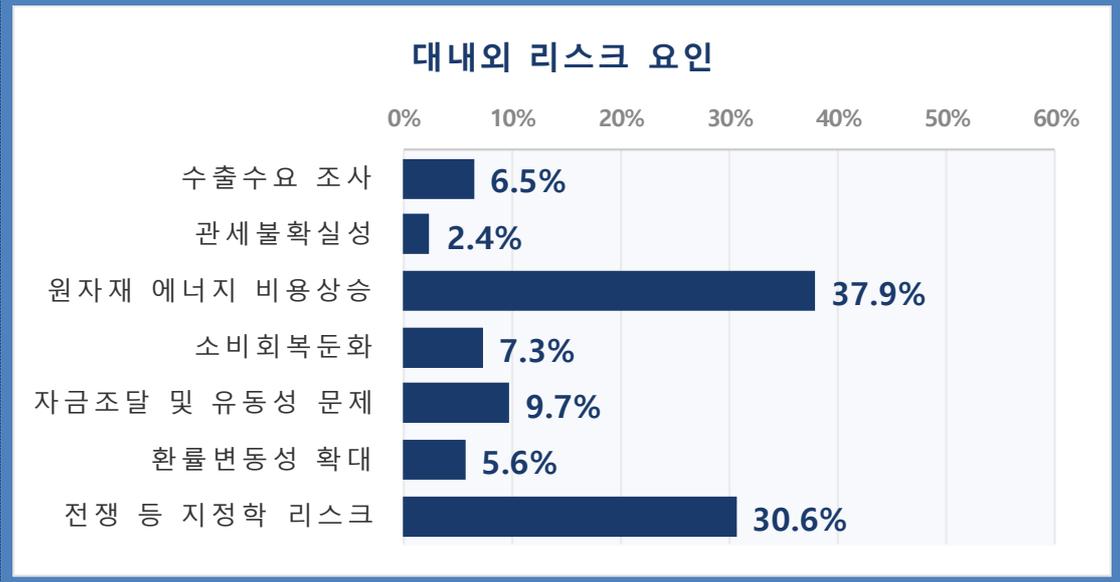
- 지난 분기 산단 침체 여파가 서비스·유통·관광·소상공인 업종으로 확산되며 전망치가 큰 폭으로 급락(1/4분기, 41.2p)한 데 따른 일시적 회복세가 이번 일반업종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여기에 2/4분기는 통상적으로 봄철 관광·소비 활동 재개와 계절적 수요 회복 기대로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계절적 특성이 전망치 개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종합 해석**

- 2/4분기 지표는 석유화학 재악화와 일반업종 부분 반등이 엇갈린 결과로, 종합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두 업종 모두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석유화학 업황 부진은 가동률·투자·발주·물동량·협력업체 일감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인 만큼, 산단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일반업종 역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번 지수 상승을 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업종별 엇갈림 속 제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향후 석유화학산업 업황의 안정화 여부가 지역 경기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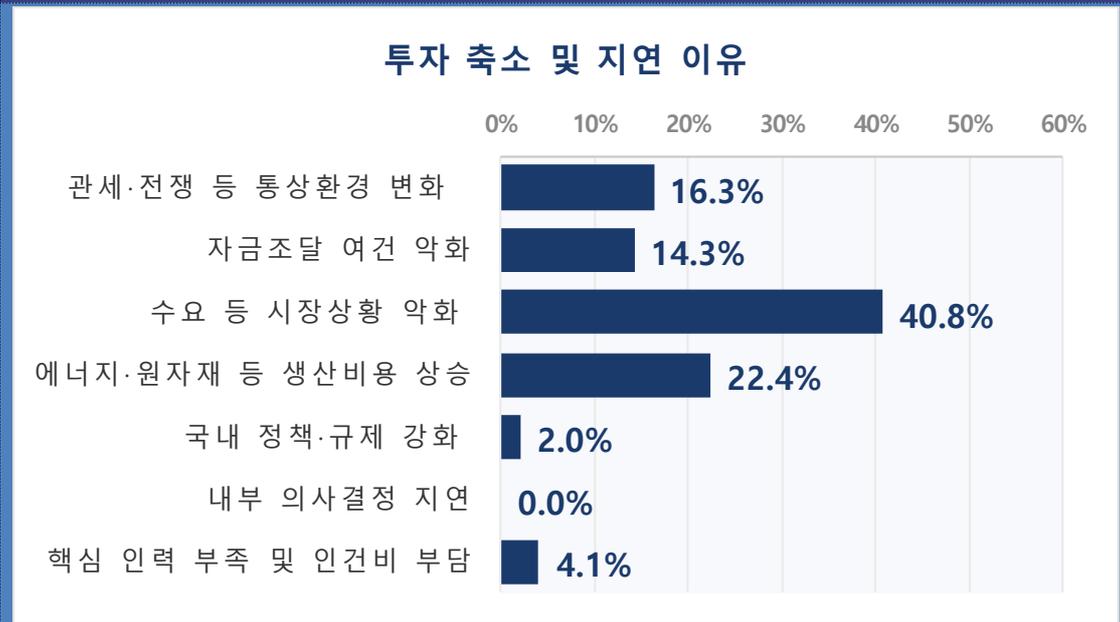
3. 세부 항목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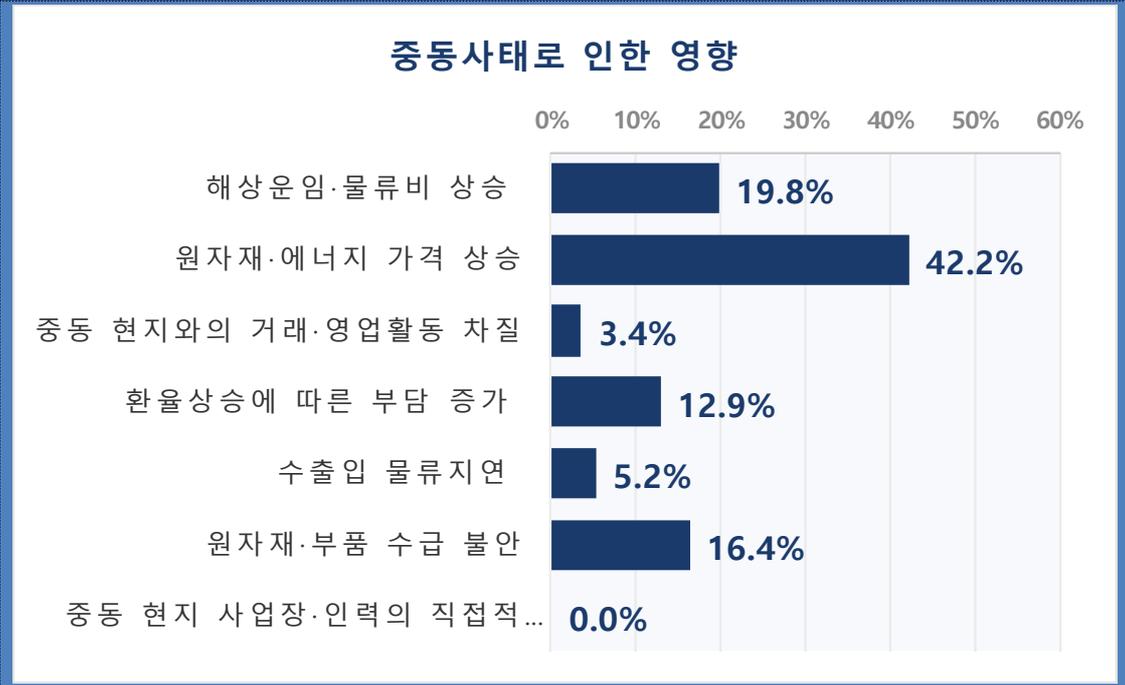
▣ 원자재 에너지 비용(37.9%) >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30.6%) > 자금조달 및 유동성(9.7%) > 소비회복 둔화(7.3%) 순으로 조사됨.

귀사의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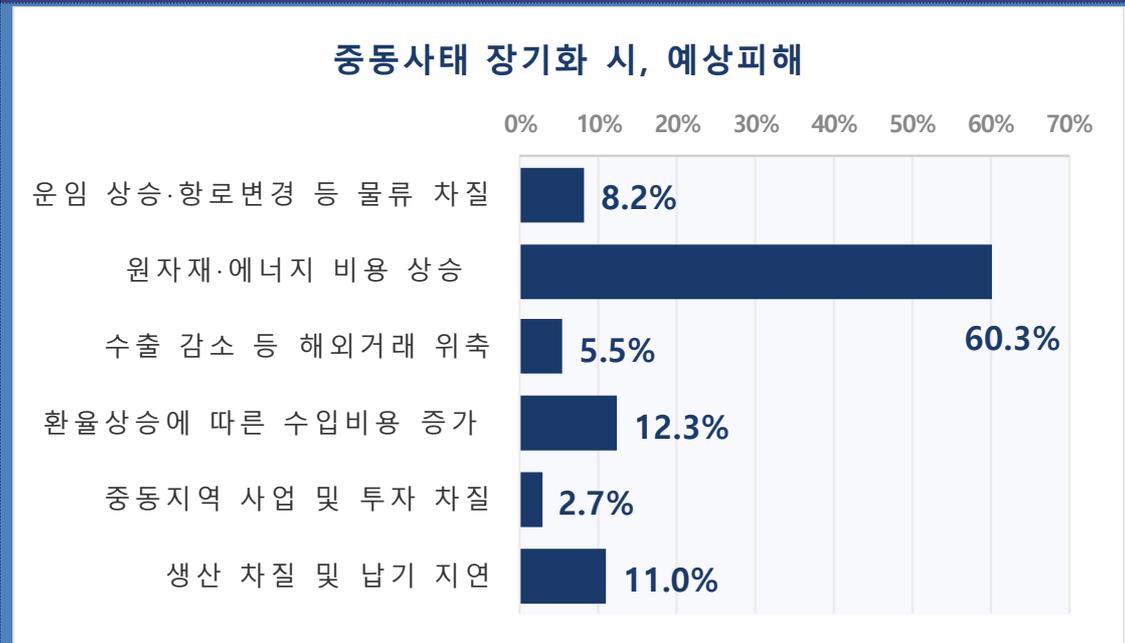
▣ 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40.8%) >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22.4%) >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16.3%) > 자금조달 여건악화(14.3%) 순으로 조사됨.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귀사가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은 무엇입니까?



- ▣ 원자재·에너지 가격상승(42.2%) > 해상운임·물류비 상승(19.8%) = 원자재·부품 수급불안(16.4%) >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순으로 조사됨.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귀사 경영에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 ▣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60.3%)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2.3%) > 생산 차질 및 납기지연(11.0%) > 운임상승·항로변경 등 물류 차질(8.2%) 순으로 조사됨.







여수상공회의소